

MOVIE REVIEW

JAMES FRANCO  
**127**

대니 보일 감독의 '127시간(127 Hours)'

# 진정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글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교수,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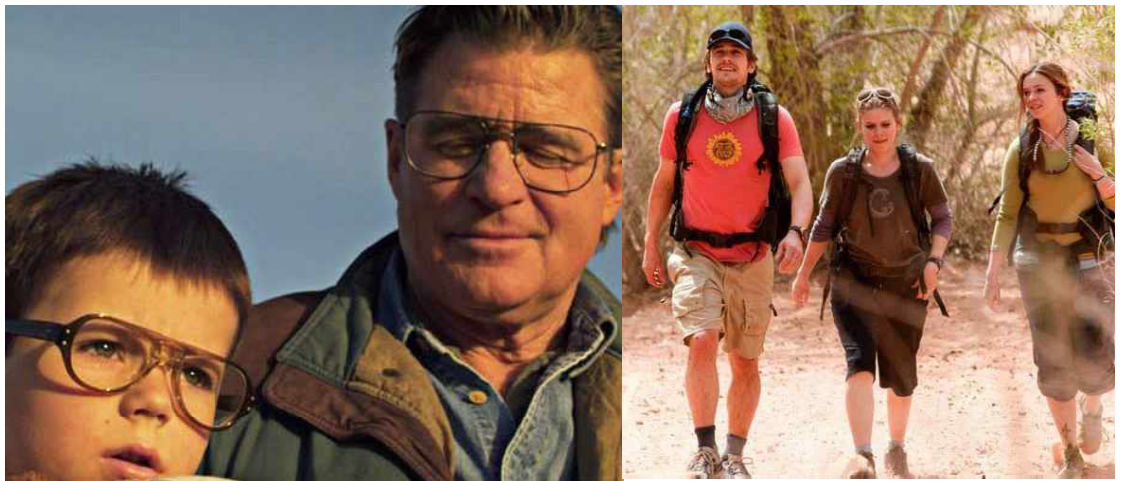
## 죽음 앞에 지루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 2008)를 만든 대니 보일(Danny Boyle) 감독이 이번에는 직접 각본을 쓰고 제작까지 참여한 〈127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인간의 투쟁을 그리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진 대니 보일 감독이 이번에는 계곡의 비좁은 틈에 고립된 한 젊은이의 고독한 사투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산악 트래킹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아론(제임스 프랑코)은 어머니의 안부전화도 무시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여느 주말처럼 유타주의 블루 존 캐년으로 떠난다. 영화는 그가 이 계곡에서 트래킹을 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하고 이를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의 사전 장치를 해놓았다. 하나는 캠코더를 들고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계곡에서 길을 잃은 두 명의 여성들에게 자신 만이 아는 지하호수로 안내하여 함께 다이빙을 함께하는 일이다. 그는 캠코더로 산악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표정을 담고, 지하호수에서 수영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익스트림스포츠 매니아들이 익히 느끼는 것처럼 일종의 자만심이 가져오는 위협으로 치달는다. 즉 남들이 알지 못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극한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쾌락의 상존이 유별나지만 쾌락은 사라진 채 고통만이 남게 되는 치명적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대니 보일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다. 비좁은 계곡의 갈라진 틈 사이에 갇혀있는데다 오른팔은 떨어진 돌덩이에 눌러 꼼짝달짝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어떻게 구성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할 텐데 대니 보일 감독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관객의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사고로 인해 죽음 앞에 선 인간을 바라보는 관객의 심리를 잘 읽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악당이나 정부의 음모로부터 도망치다가 위험에 처한 장면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등산 갔다가 발을 헛딛어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관객은 영화의 주인공이 처한 생명의 위협에 자신의 마음을 쉽게 전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밀한 부분을 크게 묘사하는 감독의 마이크로 연출기법이 관객의 흥미를 자아낸 점이다. 살기 위해 500미터 물을 아껴 마시는 일이나 목 위로 기어오르는 개미의 모습 등은 평소에는 하잘 것 없는 장면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작은 변화와 행동 하나 하나는 클로즈업되어 주인공의 생존감각에 의미를 갖게 만든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주인공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관객으로서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다.





### 절단의 미학

이 영화의 백미는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경험하는 생존의 본능이며,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제시한 점이다.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캠코더에 수록된 영상들을 보는 일들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과거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준다. 사고 전에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캠코더로 보면서 자위를 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에는 죽음만큼이나 강한 성적 욕망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이 암석 틈 사이에 갇힌 몸을 빼기 위해 오른 팔을 절단하는 모습은 이 영화가 제공하는 생존의 철학을 보여준다. 팔 역시 내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몸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자 목표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몸의 일부를 잘라낼 수 밖에 없다. 썩어 들어가는 팔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살수 없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고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가치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 영화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연연한다면 생명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부분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교회를 향한 은유

개봉 영화가 빛을 발하려면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 충무로 영화계의 오래된 정설이다. 인간미를 다룬 소품 수준의 영화라면 화려한 볼거리를 가진 블록버스터급 대형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를 피해야하고, 사회정치적인 이해가 등장하는 영화라면 시류를 잘 타야한다고 영화제작자들은 믿고 있다. 실제로 현빈이 주연한 <만추>가 대중적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TV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높은 시청률이라는 시류를 잘 탔기 때문이었다. 현빈이라는 주인공 한 사람이 지니는 상품적 가치가 영화 전체보다 컸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의 개봉시점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흥행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개봉시점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새로운 해석을 낳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27시간>이 지닌 절단의 미학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한다.

'월간 조선'이 2011년 2월호 특집기사로 '소망교회 폭력사태'를 다뤘다. 한기총은 금권선거 논란에 휩쓸린 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권력과 돈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교회가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잡아야 할 중대 과제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한 '2010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



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7.6%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33.8%였으며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8%로 조사됐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33.5%로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응답 47.4% 보다 적었다. 그런데 최근 통계는 교회를 불신한다는 사람의 응답이 절반에 이를 만큼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 여 사이에 벌어진 교회의 각종 비리와 추문의 결과들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은 이유를 살펴보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14.9%), 타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어서(7.7%), 교회의 전도 유치 활동이 심해서(6.6%), 목회자와 교인이 믿음과 신뢰를 못 줘서(6.3%),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기 때문(5.5%) 외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 그리고 교회의 대형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전도와 교회성장을 가로 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과연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얼마나 먹혀들어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특하면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한팔이 없는 가운데서 결혼하고 여전히 트래킹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절단의 창조적 가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127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곧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절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원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느낀다.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절단할 용기가 있는지를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대구 경북지역의 문화사역 격월간지인 'NewLook' 2011년 3/4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